

나의서원 나의 신행 <2>

이웃과 나눔은 결국 자기 돕는 저축

한국의 수달타장자 주영운 행원문화재단이사장



주영운 이사장은 ... 경기도 개풍군에서 태어나 1962년 한일시멘트에 입사했다. 1985년 한일시멘트 전무 이사로 퇴임 후, 평화통일 정책 자문위원, 개풍군 명예군수, 우덕재단·승가대학교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주 이사장은 승가원 이사를 비롯해 강남문화원 상임고문,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아산레미콘 주식회사 대표이사, 개풍시멘트주식회사 사장으로 활동하며 불교포교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2003년 중앙승가대학교 총장 공덕비, 2005년 중앙승가대학교 동문회장 감사비(感謝碑), 2006년 승가원 감사비(感謝碑), 2009년 국민훈장 동백장 등을 수훈한 바 있다.

사람들은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을 '한국의 수달타장자' 혹은 '현대의 수달타장자'라고 부른다. 부처님 당시 최초의 절인 기원정사를 세운 수달타장자는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급고독장자'라는 별명까지 붙었을 정도이다. 보시바라밀 행하기를 좋아하는 주영운이사장이 꼭 그러하다.

불교문화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주영운 이사장을 서초동에 위치한 집무실에서 만났다. 미수(米壽)를 넘긴 주영운이사장에게서 맑고도 밝은 빛이 뿜어져 나왔다. 평생을 잘 살아온 그런 분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이다.

1991년 2억 원의 출자금으로 공익법인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재단 설립의 밑바탕에는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라는 그의 철학이 담겨있다.

20년 세월이 흐른 지금은 지난 2월3일 8천5백만 원을 증자하여 기본자산 13억8천5백만원으로 성장했다. 20년이면 산과 물이 두 번이나 바뀌는 큰 이변이 일어나는 세월인데도 주영운이사장은 한결같이 행원문화재단의 증자와 성장에 힘써왔다.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교계 중·고등학생과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에게 지급한 장학금과 행원문화상을 통해 교계 학자와 문화 예술인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6억 4000만원에 달하며,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480여 명에 이른다.

2011년 1월에는 개관을 앞두고 있는 중앙승가대에 도서관입비가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도서관은 외형보다는 내실, 양서(良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주영운 이사장은 서둘러 도서관입비 5000만 원을 기탁하여 불자들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인재양성에 대한 주영운이사장의 서원과 발원을 또 한 번 확 인하게 되었다.

그렇게 큰돈을 보시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지 물었더니, 열은 미소를 살짝 지으면서 "나누는 것은 결국 자기를 돕는 것이라 생각해요. 남을 위하는 것 같지만 만 자기를 위해 저축하는 거와 같아요."라고 말했다. 오랜 세월 아낌없이 보시를 해 온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말이 아닌가 싶다.

주영운이사장은 20년간 아산레미콘주식회사와 개풍시멘트를 이끌어 온 CEO이며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 충남도내에서 우수 중견기업으로 성공하게 된 비결을 물었더니 "정직과 신용"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부정을 저지르면 자신보다 남이 먼저 알게 됩니다. 회사경영이든 사적인 일이든 정직하면 신용은 절로 따로 오게 되는 것이지요."라고 덧붙혔다.

수십 년을 하루 같이, 새벽 세시 반이면 자리에서 일어나 사모님과 함께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그리고 여섯시가 되면 집 주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생각한다. 저녁에도 여섯 시에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나서 집 주변공원을 산책한다. 그리고 저녁 8시가 되면 취침에 들어가는 것이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비결이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빠뜨리지 않고 <천수경>과 <반야심경>을 독

송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비법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지금은 북한행정구역으로 개성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도 개풍군 토성마을이 고향이다. 우리 정부는 개풍군을 미수북 경기도로 규정해 놓고 형식상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주영운 이사장은 미수북경기도중앙도민회 부회장과 개풍군민회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 주영운이사장은 2009년 이북도민 유공자 포상식에서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주영운이사장은 어디에서나 보시바라밀을 행하기에 절로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 모든 상황만이 그럴겠지만 "죽기 전에 고향땅을 밟아 보는 것이 마지막 소원"이라 했다.

주영운이사장은 어린 시절 하나를 가르치면 그 너머까지 알아버리는 영특한 아이였기에 주변사람들의 기대는 컸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삼급학교로 진학하기가 힘들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일본인 담임선생님이 "내가 학비를 대어줄 테니 개성상업학교로 진학할 것"을 권했다. 어린 마음에 기뻐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불명 '행원' 가르침 실천하자 서원

1991년 장학·문화재단 설립해

20년간 500여 명에 7억원 도움 줘

교계유일 역경·예술상에 매년 시선집중

"집안친척도 아닌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도 그렇고, 더군다나 일본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오즈음의 방송통신대학교 같은 곳에서 일반강의로 독학을 했다. 그 후에도 주영운이사장의 주장아독은 계속되었다.

너무나 거룩하게 느껴지는 행원(行願)이라는 불명은 관음 스님으로부터 받았다.

1972년 독산동 심원사에서 초파일에 보살계를 받게 되었다. 그때 관음 스님이 심원사에서 범문하러 오셨다가 오계와 범명을 주었다. 그때 받은 불명이 행원이다. "원을 세우고 잘 실천을 해서 바른 길로 가라고 행원이라는 범명을 주셨다"면서 불명대로 살려고 평생을 노력해왔다. '기업이윤의 사회환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장학재단을 만들면서 '행원문화재단'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불명대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행원문화재단'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다. 주영운이사장은 먼저 한일시멘트 회장인 허재경씨로부터 많은 신세를 졌다고 회고했다.

"1946년 처음으로 인연을 맺어 대한통운에서 근무하다가, 한일시멘트 창업초기에 경리과장으로 임사하여 25년동안 재직했어. 퇴직 후에는 회장님의

배려로 서전운수를 운영하는 등 40여 년을 그늘 아래서 살아왔습니다. 임원의 임기가 다 되면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를 고민하다가 농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인에 4만평의 땅을 구입하여 밤나무를 심었어요."

밤 농장은 당시 고부까지 산업이었지만 전문성이 필요했기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 밤새워 책을 독파했다. 밤나무 밑에 물이 고여 죽어가는 밤나무를 살려내고, 가지치기서부터 자연비료까지 노동을 거듭해야 했다. 이러한 노동 덕분에 일 년에 380가마씩 수확할 수 있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밤나무농장을 운영하는 것이 힘에 부치었고, 그래서 그 땅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때 집사람과 상의해서 돈이 생기면 1억 정도는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힘들게 마련한 돈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한 연유가 무엇일까?

"제가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과 일가친척이 있었기 때문이며, 한일시멘트 사장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로부터 입은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1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린 내가 뭘 아나요? 그때 동네어른들이 운구해 주시고 해서 장례식을 무사히 잘 치를 수 있었지요. 한국전쟁 때 한 겨울에 아내는 고향 개성을 떠나 한 살짜리 젖먹이를 등에 업고 피난길에 나섰어요. 추운 날씨에 아기는 발에 동상이 걸리고 아내도 지쳐서 그야말로 생사를 장담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지요. 그때 피난길에 처음 만난 한 아주머니가 빈집을 찾아 아내를 눕혀놓고 쌀을 얻어다 밤을 해주었는데, 그 아주머니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지금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꼭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도 그분들로부터 신세진 것을 갚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 장학금을 내놓는 것"이라 했다. 춘원의 시 '육바라밀' 중 한 구절이 떠오른다.

'임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냐 바치고 싶은 이 마음/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80-90년대에는 서울대나 연대, 고대 등 대학에 장학금으로 1, 2억 원을 내놓는 풍조가 있었다. 불자이니 이왕이면 불교 쪽으로 보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승가대 총장을 만났다. 학교에서 재단법인을 만드는 모든 절차를 도와 줄테니, 재단을 만들라고 해서 1억보다 배나 많은 2억을 보시하여 재단을 만들었다. 1991년 승가대 개운사에서 창립총회를 하고 재단을 출범시켰다.

그때 승가대 총장은 "2억원을 내놓으면 그 만큼 빈 것 같지요. 그런데 보시를 하게 되면 빈자리가 채워지고 또 채워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었다. 1990년에 설립한 아산레미콘주식회사는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한 그해 8억 원이라는 수익을 올렸다. 그 빈자리의 몇 배가 채워진 셈이다. 앞에서 "보시자 자신에게 저축한 거와 같다"는 말을 이해가 이해할 것 같다.

빙의 (귀신병) · 신병 · 퇴마 천도재 전문도량

매월 지장재일은 무보시 천도재



우울증, 공황장애, 수험생 집중력증가, 약물게임중독, 전생체험

- 교육생수시모집 - 최면술, 퇴마술, 기공술, 자극요법술

한국빙의 · 퇴마 · 최면연합회본부
한국근본불교조계종총무원 / 송림사 주지 현오 합장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89-13번지 상담전화 02)357-4554 / 010-5656-391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북구 화명동 소재
• 화명지하철역 1분거리 • 3층 50평
• 가액 : 전세 2천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1천만원

NAVER DUM 에서 현오스님 을 검색하세요

010-9229-3801





2011년 9월 제20회 행원문화상 시상식에서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오른쪽)이 경북대 권오민 교수에게 역경상을 수여하고 있다. 주 이사장은 안정적인 재단 운영을 위해 재단의 13억 8천5백만원의 기본자산을 15억원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이쯤에서 주영운이사장과 닮은 수달타장자의 일화를 소개해야 할 것 같다.

수달타장자는 거부(巨富)였지만 끊임없이 보시를 하다 보니 창고에 쌓여있던 재물들이 다 나가고 없었다. 부인으로부터 '내일 아침밥을 할 양식이 없다'는 말을 들은 수달타장자는 창고 문을 열어 봤다. 정말로 창고는 텅 비었고, 물레만 하나 남아있었다. 수달타는 시장에 가서 물레를 팔아 며칠 먹을 양식을 마련했다. 집에 막 들어서는데 가섭존자가 탁발하러 들어오고 좀 있다가는 아란제자가 들어왔다. 조금 후에는 부처님이 탁발을 오셨다. 수달타장자는 나머지 양식을 모두 부처님께 드렸다.

옆에 있던 부인이 "부처님이시여 우리는 내일 아침 거리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수달타야, 창고 문을 열어 보거라!"고 하셨다. 수달타가 창고 문을 열어 보니 거기에 본래대로 자기의 재물이 가득 차 있었다.

주영운이사장은 평생을 욕심 부리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왔다면 "돈이라는 것은 있으면 좋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해 불행해진다면 차라리 적은 것보다 못하다"고 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부에 대해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富)가 많아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부자가 되는 기준은 보시라고 생각해요."

결코 말씀을 길게 하지 않는 주영운이사장의 말씀은 화두처럼 오래도록 생각해 보아야 한다.

행원문화재단에서는 역경상, 예술상으로 나누어서 시상하고 있다. '행원문화상'을 통해 불교계의 숨은 인재들이 세상에 알려졌고, 수상자들은 더욱 더 힘내어 자신의 분야에 정진하고 있다. 행원문화상 역대수상자들을 대충 열거하자면, 월운스님,

"나의 오늘은 많은 이의 도움 덕분"
가족들도 한마음으로 재단 증자 참여
고향땅 밟아보는 것 마지막 소원
"물흐르듯 순리대로 살며 최선다하자"

무비스님, 각성스님, 각목스님, 송찬우, 박범훈, 강경진, 전재성, 성낙주, 김병조, 은정희, 이미령 등 참으로 많다. 그런데 특별히 역경상을 따로 만든 것이 궁금했다.

"1972년에 일본으로 여행을 갔어요. 호텔방의 서랍 속에 불교경전이 들어있어 한 번 읽어보았어요. 일본어와 영어 두 가지로 써진 경전인데 아주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것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경전을 한글로 이렇게 쉽게 쓴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발원으로 역경상을 만들게 되었지요."

아직까지도 대웅전 등 건축불사에 치중하는 것이 불교의 현실인데, 일찍 인재불사에 관심을 가진 주영운이사장의 혜안이 돋보인다. 불교의 세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시급하다는 그의 생각은 강력하다. 행원문화재단을 설립하여 20년 넘게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란다.

"장학재단을 신경 써서 운영하지 않으면 유아무야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증자가 안되면 발전이 없고 담보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재단자금을 증액해나가고 있어요. 요즘은 금리가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재단수입의 70%는 목적사업으로 써야 하기 때문에 저는 은행으로부터 한 푼의

이자라도 더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그것을 잘 운영해나가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원문화재단의 운영자금을 증자하는 것은 주영운이사장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도 보시하고 특히 아산레미콘주식회사에서 6억 원이 넘는 돈을 내놓았다. 주영운이사장은 2012년 2월까지 행원문화재단의 기본자산을 15억 원까지 만들어놓을 계획이라 했다.

상(相)이 없는 무주상보시를 행하고 있는 주영운 이사장은 "대가를 바라고 베푸는 것은 참된 보시가 될 수 없어요. 대가를 바라다면 그것은 잠시 빌려주는 것일 뿐 언젠가는 돌려받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주영운이사장의 인생철학이 궁금했다.

"이제까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아왔어요. 물은 높은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길 따라 흐르듯이 우리들도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인생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장애가 있으면 옆으로 돌아가면 되고 오늘 못 이루면 내일, 모레 이루면 되잖아요. 좀 늦게 이루면 어떻습니까? 그 과정이 더 중요하지요."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일 뿐, 결과에 대해 조바심내거나 욕심내지 않는다'는 그 말씀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것 같다. 흐르는 물처럼 살아오신 주영운이사장의 얼굴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 같다. 마주한 행원거사의 얼굴엔 고요함과 평온함과 따뜻함이 깃들여 있다.



글=문운정(본지 논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B257 강의실

날마다 하는 강의이러면 오늘은 왜 이렇게 만감이 교차될까. 마지막 강의 시간이기 때문일까. 마지막이란 이렇게 아쉽고 설레이는 일인가 보다. 30년 전 첫 강의도 설레이긴 마찬가지였으나 오늘의 설렘과는 의미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르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 강의(2011년 12월 8일)입니다. 이번 학기 종강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단생활을 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경험으로 보면 학생들이 배운 것을 모두 잊지 않고 세상에 나가 활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평소 여러분에게 힘주어 강조하는 말은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직하라'이고 또 하나는 '질문하라'입니다.

자, 정직이 얼마나 중요하니까. 만약 어느 거짓말쟁이가 지도를 거짓으로 그려 놓으면 어떠한 결과가 오겠습니까. 후세 사람들은 그 지도에 의지해 목적지를 찾아 가려고 하지만 그곳에 당도할리 만무합니다. 사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이렇게 혼돈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늘의 별이고 내 마음의 도덕률이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진주를 갈아 놓은 듯한 하늘의 별은 우리에게 꿈을 키워주고 희망을 주고 인간을 선량하게 하는 묘약이 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의 도덕률은 양심을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양심이 있으나 도깨비에게 홀리듯 갈팡질팡 중심을 못 잡는 것은 물질의 유혹에 눈이 어두워 양심에 뿌옇게 성애가 낀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문(學問)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다. 이는 배우고 질문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배우기만 하고 질문하지 않는다면 배운 것이 옳은지 틀렸는지 검증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질문의 생활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 한다고 해서 동일한 만큼 부귀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행복해지고 부유해지려면 열심히 생각해야 합니다. 사유 없는 행동은 피스톤 작용처럼 단순 동작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나는 이 교정의 어느 나뭇가지에 새순이 제일 먼저 불소식을 전하는지도 알고 있고 어느 나무가 가을을 알리는 전령인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갈망하여 '독재타도!'를 외치다 간 선배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동우탑(東友塔)에도 4·19의 거기에 있지 않고 찾아 분향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는 마지막 강의를 이렇게 끝맺을 했다. 복권을 구입해 당첨이 되면 기뻐하고 그렇지 못

하면 낙담하기도 한다. 그런데 당첨된 숫자에 기쁨이 담겨 있다거나 빗나간 숫자에 슬픔이 깃들여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작용했는 뿐이다. 마지막 강의시간에 대한 의미부여는 내가 했을 뿐이다. 강의실이나 휴관이나 분필, 지우개는 미동도 하지 않고 그저 그렇게 예전처럼 그 자리에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하지 않았을까.

조(趙) 나라의 도읍지가 한단(邯鄲)이다. 노생(盧生)이란 가난한 선비는 어느 주막에서 여옹(呂翁)이란 도사를 만나 자기의 궁핍한 처지를 한탄했다. 그 때 여옹은 가지고 있던 보따리 속에서 베개 하나를 꺼내주면서 "이 베개를 베고 자면 뜻한 대로 부귀영화를 누리리라"라고 말했다. 도사가 시키는 대로 베고 자니 절세의 미인을 만나 장가두고 과거에 급제해 무궁한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 깨어나 보니 주막의 주인이 앉았던 मे조 밥은 아직 풀지도 않았


유한한 인생 일장춘몽 같이 덧없어도 반드시 지닐 것은 '정직'과 '의문'

다. 쓴 입맛만 다시며 머리를 굴적이고 있는 노생에게 도사는 "세상일은 이와 같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유한한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영원할 것 같은 것이 영원한 적이 없다. 어제의 세도가가 오늘은 얼굴을 떨구고 지상에 나타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들이 노생의 꿈을 뚫어 보았다면 저렇게 일그러진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터인데 하는 아쉬운 연민도 갖게 된다. 노생의 꿈 보다 때때로 한철이라는 기회주의가 머리를 꼭 채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 누구나 찰나를 살다 가는 초로인생의 여정에 잠깐 그 자리에 머물다 가는 나그네인 것을.

현명한 어머니를 구모(歐母)라고 한다. 송나라 구양수(歐陽修)의 어머니는 집이 몹시 가난하여 싸릿대로 땅에 글을 써서 아들을 가르쳤다는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요즘 학부모들은 자식을 온갖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사연이야 구구절절하다. 학원도 중요한 몫을 하지만 원론적으로 사려 깊은 자녀로 키우려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 주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 회상한다. 그 마지막 시간에 숙연한 모습으로 초롱초롱한 눈으로 귀 기울여 강의를 들던 학생들이 푸른 창공에 흰구름 마냥 화사한 웃음을 지으며 '안녕하라'는 목례로 답하던 그 모습을. 그들은 아마 희망이란 작은 불씨를 키워갈 것이다.



LEADER



국제 선 불교 조계종

중생구제 인간방생으로 세계와 한국 속에 자랑스런 종단!
12 인연법을 중시 여기며 화합과 단결과 품앗이로 서로 돕는 종단! 누구에게나 땀땀하게 밝힐 수 있고 소개할 수 있는 종단!

큰 종단, 큰 절, 각 종단을 이끄는 스님들이 불교 지도자들이십니다. 그러나 비록 조그마한 암자나 토굴, 인법당을 운영하는 스님, 포교당을 운영하는 이름 없는 스님일지라도 포교일선에서 그늘진 곳,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서 땀 흘리는 불제자, 중생구제, 인간 방생을 몸소 실천하는 스님들, 재가 범사, 불자님들 또한 진정한 불교 지도자요, 중생의 지도자입니다. 이토록 어렵고 힘든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공양 올리고자 하는 뜻을 함께 하여 부처님 세상을 이룰 사찰 및 스님들의 종단 가입을 바랍니다. 마음과 몸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을 위한 인간방생을 실천하는 사찰과 스님들의 가입으로 작지만 알차고 자랑스런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종단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두 동참합시다! 모임시다!
사찰등록! 지금 바로 하십시오.

개인의 명예나 대우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욕심없이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는 보살행을 행하는 참 불자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부처님을 감동시키는 부처님 세상 참다운 불교 종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불교 최초로 우리 종단만이 입을 수 있는 승복 및 수자보(스님가방), 장삼, 가사까지 갖추어진 종단입니다.

종교법인 국제 선 불교 조계종

목탁 혜은
대표전화번호 : 02)733-5665